

105. 너희들의 의제와 나의 의제가 일치하지 않아...

나를 기꺼이 도와줄 수 있어?

2015.08.04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유튜브 가족여러분, 주님은 진정으로 저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아침 제가 찬양을 할때 저희가 받은 이메일 중 하나의 이메일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어떤 남성분이었고 휴거에 대해 물어보면서 휴거가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약간의 실망감을 토로하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6월 모두에게 댄스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었고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과 생각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저희는 저희의 댄스 신발을 지난 6월부터 신고 있고, 총총나무가 꽃을 피울때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른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위해 아직 오지 않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아파 하였다는 것을 이해해요.

저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느끼기까지 해요. 때때로 저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람이 아니겠조? 저도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예요.. 저는 이것을 제 마음으로 느껴왔지만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메시지를 올릴때마다 시간을 내어 댓글을 달고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는지를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주님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확인시켜주세요. 그런데 왜 저희는 의심과 불신에 빠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인간의 본성의 일부분이에요..

저희가 기분이 좋지 않고, 버림받은 기분이 들고, 실망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가끔 그렇게 느껴요. 저는 이 감정들과 고군분투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의 설교하실때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말씀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을 만약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나를 버릴 것이냐?”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하였어요.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것을 여러번 느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실망하거나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때 나는 무엇을 해야하나? 내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실때 응답하지 않아야하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소리가 바로 주님이심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후에 주님께서는 찬양중에 저를 멈추게 하셨어요. 제 마음에 주님의 목소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리게 해주셔서 더이상 찬양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단지 앉아서 여러분과 나누어야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과 나는 다른 의제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이 지구여정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너희들의 영원한 보상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기를 갈망하고 있어. 나는 이것에 대해 너희들을 비난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 또한 너희들을 갈망해.

하지만 너희들의 의제와 나의 의제는 일치하지 않아.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으며 자비의 창문이 닫힐때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다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것이 보이지 않아? 이것은 내가 견뎌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며, 내가 십자가에 못박히기전 동산에 있을때와 같이 그렇게 해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눈물이나.

내가 견뎌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은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 그리고 나와 함께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들의 준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한 처절한 상실감이야. 그것은 내가 경험한 것들 중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어.

나는 작은 영혼이 지구에 왔을때의 그 성향을 기억해. 나는 그들의 순수함, 아름다움, 진정함을 기억해. 그리고 지금 그들을 보면 죄와 거짓말로인해 모든 것이 훼손되고 변형되었고, 나를 밀어내고, 나의 공급을 거부하고, 이것을 보는 것은 나의 마음을 무너뜨려. 그리고 왜 그들은 나를 밀어낼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의 이름, 나의 믿음, 나의 인격을 변형시키고 훼손시켰어.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해. 왜냐하면 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기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판단과 위선으로 가득차 있어.

그들은 하나님은 증오하시고, 비열하시고, 기쁨을 빼앗으시고, 지나치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구속복을 입고 사는 것이라고 배웠어. 그들은 색깔이 다른 짹짹 양말을 신고 교회를 들어가면 심판을 받고 거절당할 것이라고 배웠어.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이미지를 보여주었어.

그래서 뒤틀린 종교의 의제를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나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참된 본성을 세상에 전할 사역자들을 세웠어. 그러면 나는 내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결과는 훌륭해. 마침내 돌아서서 나를 알아본 너희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오, 나의 아픈 마음은 너희들에 의해 매우 위로가 되.

하지만 아직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박되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 이들 중 일부에는 너희들의 친척들과 자녀들도 있어.

너희들에게 이것을 물어보자. 너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 감수할 거야?? 우리가 지금 내 안에서 기뻐하는 것 같이 그들이 구원을 받아 내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기 위해 너희들은 언제까지 기꺼이 기다릴 수 있어?

너희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 너희들은 어떠한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그들의 영혼들의 대가는 무엇이야?

너희들 모두는 내가 곧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나는 60년대부터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해왔어! 그리고 매달 나는 점점 더 많은 압력을 가해. 왜냐고? 너희들을 실망시키고 너희들을 남겨두기 위해서?

아니야!!! 너희들이 나의 의제에 너희자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천국에 더 많은 영혼들을 데려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클레어) 오 주님, 이것은 일부에게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의제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전혀 몰라요. 주님 저도 이것에 대한 죄가 있어요. 만약 이 유튜브 채널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죄를 짓고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이에요.

(예수님) 그들을 깨워라.. 그들의 양심을 통해, 그들의 내면의 실망감과 공허함을 통해. 그들은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이고 깊이 잠들어 있고 모두 너희들의 주변에 있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있지 않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공허함을 느낄 수 있어. 그들은 상처를 입고, 외롭고, 혼란스럽고, 삶의 방향이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야. 그 방향에서부터 그들에게 접근해라. “상처를 받으셨나요? 삶에 깊은 실망을 하고 삶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시나요? 점점 더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닥쳐오는 것을 보고 있나요? 여전히 살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삶에 대해 다시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직전에 있어. 왜냐하면 그들이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폭력, 부도덕, 실망, 실패한 꿈들. 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는지. “아무도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네? 삶은 희망이 없는 공허인가? 산산히 부서지는 나의 꿈들보다 삶에는 더 많은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지 알아? 수천명? 아니, 수백만명이야. 타락한 통치자들, 대량 학살, 박해, 사악한 정부때문에 수백만명이 고통을 겪고 있어.. 그래! 수백만명이!

나의 자녀들아, 이것에 대해 신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해. “저는 지금 지구의 보상이나 저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죽음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머지않아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숨으로 저희들이 한 일과 하지 않을 일에 대해 하나님께 답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있으실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았나요?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요? 당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병약자, 노약자, 어려운 사람들, 약자에게 축복이 되셨나요?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셨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보여드릴 수 없을 것이예요. 당신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기심과 비난뿐이예요.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요?”

(클레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너희들 안에 있는 희망을 너희들은 알고 있어? 그들이 필요로하는 모든 답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나의 백성들아, 나의 신부들아, 나는 너희들이 필요해. 나는 너희들이 일어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마주하기를 원해.

구름(휴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멈추고, 그들 때문에 무너지는 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해라. 제발 너희들 자신의 구원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바라보기 시작해라.

학교를 다니는 너희들은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되 어디를 가든지 나의 사랑의 산 증인이 되어라. 너희들의 삶이 빛나게 해라.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라! 너희들은 매우 고유하고, 너희들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답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그들의 이기심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내면에서 길을 잃었어. 너희들이 친절하고 너희들의 길을 가며 행복해하는 것을 그들이 본다면, 그들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할 거야. 그들은 희망 없이 내면을 찾아보고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나를 알아. 너희들은 그들의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너희들을 위해 올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이 말을 했어? 몇 번이나? 이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성경에서, 교회에서? 나는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갈 거야.

날짜에 대해 기대하는 것을 멈춰라! 너희들은 나의 대표자들처럼이 아니라 요요(몇 번이나 급격히 변동하는 것)처럼 살고 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날짜가 맞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우울해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바쁘게 만들기위해서 너희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몰라? 나는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둘러싼 현실, 내가 매일 슬퍼하는 현실로 너희들을 일깨우려고 노력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할 거야.. “제가 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왜 저희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저는 노력했어요 주님.” 그리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본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 할 거야.. ‘그들은 저희에게 말해주려고 노력하였지만 저희는 믿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의 앞에 섰을때 너희들은 어떤 그룹에 속해있고 싶어? 재능을 키운 집단에 속할 거야? 아니면 재능을 묻은 집단에 속할 거야? 그 날에 너희들은 추수하는 사람들과 게으른 사람들의 차이를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들의 삶을 미루지 말아라. 앞으로 나아가고 나를 너희들과 함께 데려가라. 사역의 삶으로 모두 전념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해. 만약 너희들이 나를 또 다른 날로 미룬다면, 너희들의 삶에 크게 실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너희들의 모든 계획에 따라 전진해라. 그리고 만약 너희들에게 계획이 없다면, 나를 찾을 때까지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계획을 줄 거야. 나는 너희들의 마음에서 조용히, 부드럽게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너희들은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리는 것을 느낄 거야.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에 고요한 작은 목소리와 보살핌일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해. 왜냐하면 게임, 록 음악, 군중들 사이, 교통 및 일과 같은 소음들이 너희들의 귀를 지치게 하여 너희들이 내가 부드럽게 인도하는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야.

(클레어) 아.. 주님,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몇년이나 남았다고 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예수님) 내가 너희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만약 내가 너희들을 놀라게 하였고 너희들이 옥상에 앉아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때 너희들과 같은 아파트에 있는 너희들의 이웃은 그날 밤에 총을 쏘고 지옥에 간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내 앞에 어떻게 설 거야? 그것이 이기심의 열매가 아니야?

나의 신부들아,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는 거야. 그래, 너희들은 내가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너희들은 쇼파(뽕피리)소리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직면한 일들로 등을 돌리고

너희들의 교육과 일에 자신감으로 진행해나아가라.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 올려져 있는 휴거의 날짜들로 살면서 너희들의 삶을 멈추지 말아라.

그것이 혼란과 두려움과 절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요청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이것에만 오직 집중하여 조종당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호기심도 부여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호기심이 너희들을 가장 잘 이용할 거야. 만약 너희들에게 충분한 자제력이 없다면 호기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 더 많은 자제력을 위해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좋아.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문 앞에 있다는 단서들을 주기 때문에 휴거의 날짜들을 무시하는 것이 좋아! 이것을 너희들의 마음에 간직하되 내가 왔을 때 나의 종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전진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클레어, 마지막으로 너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너의 마음의 사색을 들었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기도 덕분에 휴거를 미룰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야. 너희들 모두는 말그대로 휴거 직전에 있었어. 하지만 너희들의 진심어린 기도때문에, 너희들이 너희들의 친척과 세상을 위해 짊어진 슬픔때문에 나는 누그러뜨리고 휴거를 지연시켰어. 클레어, 나는 이것을 첫날부터 이야기했어. 너의 이전 메시지로돌아가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의 신부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

너희들은 지구의 성도들에게 감사해할 수 있어. 그들은 이 지구에 대한 불타는 심판을 미룬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나의 손을 지연시키는 쪽으로 들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기 바로 한 발자국 전에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야.

(클레어) 하지만 주님, 날짜가 정해졌다고 저에게 말씀해주신 것은 주님이 아니셨나요?

(예수님) 그랬어. 그 날짜는 왔었고 나의 자비로 지나갔어. 여러 층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 한 그룹이 천국에 들어오고 또 다른 그룹(매우 자주 처음 그룹과 관련됨)이 따라왔어. 구원이 물결이 잇따랐어. 하지만 그것이 곧 끝나게 될 때가 올 거야. 나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해. 너희들의 마음도 여기에 있기를 바래.

자신의 위안이나 구원에 너희들의 기도의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내가 아직 다다르지 못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일꾼들이 추수밭에 가도록 전에 없던 것처럼 기도하여라.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만약 너희들의 삶이 지루하고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나의 종들의 삶을 절대로 지루하게 하지 않아. 나는 항상 너희들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위로와

기쁨을 보내. 만약 너희들이 지루하다면 나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가 올 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을 섬기고 나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 이것이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한 많은 너희들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래.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대학과 직업의 기회에 마주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고 너희들의 마음 속의 부드러운 나의 인도를 따르기를 바래.

나는 지금 나의 은혜의 장막을 너희들 모두의 위에 펼치고, 너희들에게 죄의식, 회개, 희망,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의 기쁨과 너희들의 삶에서의 내가 인도하고 있다는 확증을 너희들에게 전해줘.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라. 나는 곧 갈 거야.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5~47절)